

가평군, 2025~2026년 경기도체전 단독 신청

스포츠 인프라 1천억 투입 대회 유치로 경제효과 기대

가평군이 2025~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단독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2026년 종합체육대회 개최 희망 도시

를 접수한 결과 가평 1곳만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실사단을 구성해 이달 말 가평 체육시설 등을 실사한 뒤 체육진흥협의회를 거쳐 5월 안에 개최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최지로 결정되면 가평군은 2025년 봄 체육대회와 2026년 가을 생활체육 대축전을 동시에 치른다. 가평군은 수년간 스포츠 인프라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한 만큼 대회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종합운동장 시설을 개선하고 한석봉 체육관 등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다.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국공장 등 공공 체육시설도 확충했다. 가평군은 역대 첫 종합체육대회 개최로 300억원 이상 경제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가평군은 서태원 군수 취임 이후 스포츠 관광 도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나섰다. 지난 1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온·오프라인에서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 군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건의했다. 지역 사회와 체육인도 동참, 음식점



지난해 경기도 체육대회 가평군 선수단 입장 모습.

(사진=가평군)

과 숙박업소 등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행정동우회와 새마을회가 시가행진을 통해 유치 열망을 전했다.

가평 출신 프로골퍼 지은희 선수가 유튜브 영상 제작에 참여해 유치를 응원하기로 했다. 신영수 기자

‘빙속 여제’ 김민선 “이번엔 금메달”

ISU 스피드스케이팅 500m 세계선수권 첫 우승 도전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을 대표하는 새로운 ‘빙속 여제’로 입지를 굳혀가는 김민선(24·의정부시청) 생애 첫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김민선은 4일(한국시간) 새벽 네덜란드 헤이렌베인 티알프에서 열리는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 출전해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는 김민선에게 의미가 크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로 김민선은 아직 시

상대에 오른 경험이 없다. 그는 가장 최근에 출전한 2020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서 18위에 그쳤고, 2019년엔 17위에 올랐다. 김민선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종목에서 단 한 번도 ‘톱10’에 들지 못했다. 올해는 이야기가 다르다. 김민선은 올 시즌을 앞두고 무서운 속도로 기량을 끌어올렸고, 세계 최고 여자 단거리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김민선은 올 시즌 월드컵 1차 대회부터 5차 대회까지 압도적인 성적으로 여자 500m 우승을 싹쓸이했다. 지난달 18일에 열린 월드컵 6차 대회 여자 500m에서는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관왕 등극에 실패했지만 바닷안 체력 문제에도 은메달을 목에 걸며 실력을 입증

했다. 김민선은 이번 대회 여자 500m 종목의 유력한 우승 후보다. 그는 지난해부터 순 술 특 없이 뻥뻥한 경기 일정을 소화한 탓에 최근 체력 문제를 드러냈지만 월드컵 6차 대회를 마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했다. 김민선의 소속 팀 감독인 제갈성렬 SBS 해설위원은 “김민선은 월드컵 대회 후 귀국하지 않고 유럽 현지에서 컨디션 조절에 힘썼다”며 “세계선수권 대회에 맞춰 몸 관리를 잘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회의 최대 경쟁자는 월드컵 6차 대회 우승자인 버네사 헤이초크(오스트리아)다.

2022 베이징올림픽 우승자 에린 잭슨(미국), 월드컵 5차 대회에 불참하며 체력을 안배한 유타 레이르담(네덜란드) 등이 메달 색을 놓고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민선은 이번 대회 여자 500m와 여자 1000m 등 두 종목에만 출전한다. 여자 1000m는 4일 밤 11시57분에 시작한다. 이번 대회엔 남자 단거리 간판 김준호(강원도청)와 장거리 이승훈(IHQ), 정재원(의정부시청)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특히 김준호는 지난해 12월 월드컵 4차 대회 남자 500m에서 우승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남자 500m는 4일 새벽에 열린다. <연합뉴스>



‘빙속 여제’ 김민선이 4일 새벽 네덜란드 헤이렌베인 티알프에서 열리는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서 생애 첫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 문 열어

장애를 넘는 스포츠 체험 전국 최대 618.44㎡ 규모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 인천에 문을 열었다. 인천시가 2일 장애인들이 가상현실에서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인천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시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

원장, 김유근 부위원장, 유경희 부위원장, 이규생 시 체육회장, 성낙신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커팅식, 기념촬영, 시설택형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문학경기장(서측) 지하 1층 ‘구(舊) 월드컵홍보관 & 유물전시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규모인 618.44㎡(187평)의 장애인전용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다. 지난해 3월 시 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가상현실체험

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번에 개소하게 됐다. 센터에서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 신체 움직임 감지하는 센서와 체험공간의 바닥, 천정과 벽에 투사하는 영상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경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XR스포츠, 스마트러닝, AR액션플로어, 3D모션플레이, 3D모션플레이, 레이저사격, VR바이크 등 10종의 장비를 갖췄으며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동반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무

료다. 센터에서는 주 이용객이 장애인 고려해 인솔자의 지도로 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월~금까지 주 5일 운영한다. 월·수·금요일은 3부로, 화·목요일은 총 2부로 나눠 운영한다. 센터의 이용은 3월 이후부터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체험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도 다양한 가상현실 체육 콘텐츠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사업 지원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소방관·교사 모인 체코 야구대표팀

WBC 본선 진출 ‘꽤’ 선수 대부분 아마추어

루카시 에르폴리(27)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체코 언론사의 홍보 직원으로 일한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체코 야구대표팀 투수로 ‘변신’한다. 최근에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투타겸업 신드롬을 일으킨 오타니 쇼헤이(29·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공략법에 몰두했고, 결론도 내렸다. 그는 2023 월드컵베이스볼 클래식(WBC)에 일본 대표로 뛰는 오타니가 3월1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체코와의 1라운드 B조 경기에 출전하고 자신이 마운드에 선 상황을 가정했다. “일단 몸쪽 직구를 던지겠다. 오타니가 홈런을 칠 수도, 못 칠 수도 있다. (2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노리겠다. 몸쪽 직구에 놀란 오타니가 발을 뒤로 빼면 바깥쪽 슬라이더를 던질 생각이다. 내 계획이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 달라” 에르폴리는 청소년 대표 시절 국제대회에서 오타니와 만났고, 2루타와 볼넷을 내줬다. 이후 둘의 실력 차는 더 벌어졌다. 에르폴리는 ‘아마추어’고 오타니는 2021년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에 오른 세계 최정상급 프로 선수다. <연합뉴스>

하지만 에르폴리는 오타니를 삼진 처리하는 꿈을 꾸는다. 2023 WBC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서 꿈을 이룰 기회도 얻었다. MLB닷컴은 2일(한국시간) 체코 대표팀을 소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눈에 띄는 건 체코 선수들의 진짜 직업이다. MLB닷컴은 “체코 선수들은 대부분 진짜 직업이 있다”고 전했다. 내야수 마르틴 체르벤카는 외과원, 지명타자 페트르 지마는 애널리스트, 외야수 아르노슈트 두보비는 고등학교 지리 교사, 투수 마레크 미나르지크는 부동산 중개인, 대표팀 에이스 마르틴 슈나이더는 소방관으로 일한다. 체코 대표팀을 이끄는 파벨 하딤 감독의 진짜 직업도 의사(신경과 전문의)다. 체르벤카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한다. 집으로 가 저녁을 먹고, 오후 8시 또는 8시30분에 훈련을 시작해 오후 10시 반 또는 11시까지 훈련한다”고 직업과 야구를 병행하는 고된 일과를 소개했다. 에르폴리는 “나는 체코 야구 대표 선수들을 ‘광신도’라고 부른다. 야구로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족과 지내는 시간마저 포기하며 훈련한다”며 “이유는 단순하다. 야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군포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28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체육회 및 군포시 축구협회와 군포2동 여성축구단 창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군포시)

군포2동 여성축구단 생킨다

주민자치회-체육회-축구협 3월 모집... 10월 창단 예정

군포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28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체육회 및 군포시 축구협회와 군포2동 여성축구단 창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군포2동 여성축구단 축구교실 운영 및 창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군포시장 하은호, 군포시 체육회 서정영 회장, 군포시 축구협회 이석진 회장 등 약 20여명이 참석해 상생·우호의 뜻을 다졌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시설 대관 및 인적·물적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추진하는 대외적 홍보활동 △세 기관의 상호 우호 증진 협력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포2동 여성축구단 축구교실 운영 및 창단을

공동 목표로 삼고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김응주 군포2동 주민자치회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협약으로 상생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정영 군포시체육회장은 “우리 시의 여성 축구의 기틀을 다지고 저변을 넓히기 위한 군포2동의 용기있는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훌륭한 초석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의 축구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포2동 여성축구단은 3월 선수 모집을 시작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해 기본기를 다진 후 오는 10월 여성축구단을 창단할 계획이다. 정용포 기자